

밀레 110주년 창립 기념 특별 행사 실시

-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 통해 역사 퀴즈이벤트 실시...푸짐한 선물 증정
- 1930년 제작된 목조형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전시 예정
- 독일 전통음식 쿠킹클래스 등 고객 대상 특별행사도 실시

독일 명품가전 밀레(밀레코리아 대표 안규문. www.miele.co.kr)의 한국지사 밀레코리아는 올해 7월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7~8월 2개월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 히스토리 제품 전시회, 쿠킹클래스 등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

새롭게 단장한 밀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퀴즈는 밀레의 역사와 설립 년도를 맞추는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퀴즈 응모 기간은 8월 2일(일)까지며 정답을 맞추는 고객 중 1등 1명에게는 주방명품인 이탈리아(Italia) 인덕션 냄비 2종 세트를, 2등 3명에게는 우수한 세탁력을 자랑하는 밀레 울트라 화이트 분말 세제(2.5kg)를, 3등 5명에게는 색상유지가 탁월한 밀레 울트라 컬러 액상 세제(2ℓ)를, 마지막으로 4등 10명에게는 가전기기 클리너(250g)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밀레 가전제품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1930년에 제작된 목조형 세탁기에서 현재의 금속형태로 외형이 바뀐 세탁기, 밀레 최초의 진공청소기와 수동 다림질기 등 최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전시하는 '히스토리 전시회'도 쇼룸에서 진행된다.

특히 1930년산 목조형 세탁기는 통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탁기 안에 세탁물과 물을 넣은 후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 원심력을 이용해 세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1914년에 제작된 롤러 방식의 다리미는 2개의 롤러 부분에 세탁물을 넣은 후 손잡이를 돌려 옷감을 다리는 간편한 사용 방식을 보여준다.

일반 고객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로는 오는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역삼동 밀레 액티브키친에서 요리전문강사를 초빙해 독일 식문화를 테마로 한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 방법은 홈페이지의 접수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독일식 족발요리와 소시지 요리, 생강 쿠키 등의 요리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쿠킹클래스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독일 와인 및 맥주가 함께 제공되며 전문요리강사가 직접 요리한 고급 요리를 정찬으로

즐길 수 있다.

밀레코리아 윤일숙 마케팅팀장은 “이번 행사는 밀레 창립 1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밀레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명품가전으로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행사배경을 설명했다.

밀레는 1899년 밀레와 진칸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가전회사로, 창업 이래 110년 동안 밀레와 진칸 두 가문이 4대째 대를 이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평균 제품 수명 20년’이라는 탁월한 내구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가전제품의 벤츠나 BMW로 통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6월에 밀레의 한국지사인 밀레코리아가 설립됐다.

문의: 02)3451-9451~2

홈페이지: www.miele.co.kr

(끝)

